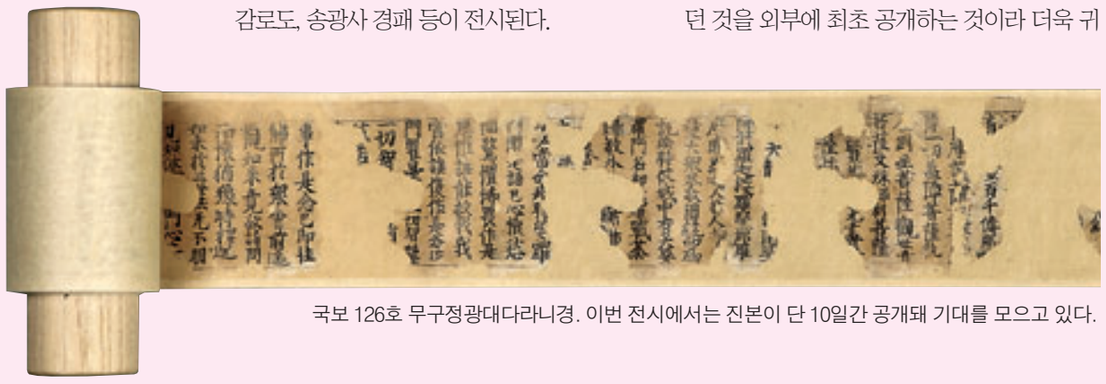
내로라하는 성보문화재, 불교중앙박물관에 '총출동'

개관 10주년 특별전 '10年×10人×10來'

'상원사 사불회도' '청룡사 감로도' '송광사 경패' '천은사 금동불감'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름만 들어도 위용이 느껴지는 이 불교문화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비밀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의 10년 역사 속에 숨어있다. 바로 불교중앙박물관의 역대 특별전 및 테마전에서 전시된 이력을 보유한 것. 단 1점이라도 직접 보기 어려운 성보들이 불교중앙박물관 10주년을 기념해 '다시 보고 싶은 성보'란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국보 12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번 전시에서는 진본이 단 10일간 공개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월 13일 개막식, 11월 26일까지
국보 등 성보 총 78건 209점 전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진본 공개돼
18C 화파 이끈 의균·의겸 작품도

불교중앙박물관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10年×10人×10來'를 9월 14일~11월 26일 개최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의 역사를 짚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전에는 국보 1건, 보물 22건, 중요민속문화재 1건 등 국가지정문화재 24건을 포함한 성보문화재 총 78건 209점이 전시된다. 이처럼 다수의 보물급 성보문화재가 총출동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테마는 총 3가지 '10年' '10人' '10來'로 나뉜다.

그동안 전시에서 '상원사 사불회도' '청룡사 감로도' 등을 친견할 기회를 놓쳤다면 제2전시실의 '10年'을 찾아가보자. 불교중앙박물관을 거친 숱한 불교문화재 중 관람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성보 중의 성보(聖寶)'를 모았다. 2007년 개관 특별전 '佛'에서 전시된 보물 제1326호 상원사 사불회도(1562년, 국립중앙박물관)를 시작으로 설송당 연초 진영, 청룡사 감로도, 송광사 경패 등이 전시된다.

특히 국보 제12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진본은 개막일부터 22일까지 단 10일간만 공개돼 눈길을 끈다. 그 외 기간에는 영인본이 전시된다.

한국불교의 역사를 찬란하게 빛낸 불교미술의 장인(匠人)들의 작품들은 제1전시실 '10人'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조선부터 근대까지 긴 세월 동안 불교미술의 화업(畵業)을 이어온 장인 10인을 선정, 이들의 대표적 작품을 선보인다.

장인 10인에는 18세기 팔공산 화파와 호남 조계산문 화파를 이끈 양대산맥 의균·의겸 스님, 사불산 화파의 수화사 신겸 스님, 현대 불화의 맥 약효 스님,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조각가 양지 스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선 후기 화파 형성의 선두에 선 현진 스님의 '천은사 목조보살상'(보물 1889호)과 팔영산 능가사의 수화사 색난 스님의 '천은사 아난가섭상'은 그동안 사찰에 비장(備藏)됐던 것을 외부에 최초 공개하는 것이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제3전시실의 '10來'에는 현재 진행형 문화유산으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앞으로 더욱 조명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들을 모았다. 인각사 공양구, 무량사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용문사 지장보살좌상, 흥천리사지 '당조장대장경이지함' 명비편 등이다. 특히 무량사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은 발견 후 도난당했던 것을 최근 되찾아 삼존불의 모습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현조 스님은 9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10주년 기념전을 통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발전적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면서 "성보 중에서도 명작·명품으로 평가되는 문화재가 한 자리에 모인 기회로, 성보문화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은 1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및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보물 1326호 상원사 사불회도. 1562년.



무량사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조선전기.



보물 1889호 천은사 목조보살상. 1614년.

금니사경과 변상도, 그 유려함에 빠지다

한국문화재재단, 금운 김경미 작가 초대전



금운 김경미 作. 묘법연화경변상도 권 제7.

금운 김경미 작가의 2017 한국문화재재단 초대 작가전 '금니사경·사경변상도 기획전-佛, 금빛 세계로'가 9월 16일~10월 1일 서울 삼성동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 개최된다.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향수)은 전통공예 및 미술 기반의 창의적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작가를 선정해 1년에 3차례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초대전은 고려시대 유려한 예술을 이뤘던 고려시대 전통사경 및 사경변상도의 문화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금니사경(권자본·절첩본·선장본), 창작사경 등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닥나무 원료를 쪽 염료로 선염해 제작한 전통감지에 금니로 쓴 사경 및 사경변상도의 작품과 옻칠종이에 금니로 쓴 사경작품 등 희귀본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감지금니묘법연화경변상도를 비롯해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권자본), 금강반야바라밀경(권자본), 지장경(선장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절첩본), 문수사리문보리경(권자본), 불설아미타경(절첩본), 관세음보살보문품(권자본) 등 전통사경기법으로 제작된 작품들도 소개된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사경은 찬란했던 예술이자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통문화라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 금·은자 전통사경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김경미 작가의 사경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특별한 세상 '別有天地' 속으로…

〈별유천지〉

로터스갤러리, 김단비 청년신인작가 展

2017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김단비 작가의 전시 '별유천지(別有天地) 두 번째 이야기'가 9월 1일 개막했다.

김단비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전공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조선대학교 병원 및 광주시립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60여 단체전 및 1회 개인전을 연 바 있다.

'별유천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 작가의 회화작품 20점이 전시된다. '별유천지'는 별세계, 즉 속세와는 다른 이 세상 밖의 이상적인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김 작가는 "내 작업은 마블링 기법을 통한 다채로운 색채 속에서 나타나는 우연적 형상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면서 "이를 표현하는 주요 모티브는 우리의 옛 그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연을 바라보는 본인의 주관적 시선에서 산수를 재해석하고 구현하는 것은 내 정체성을 찾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별유천지, 100cm, 광목에 혼합재료.

작가의 이러한 상상 속에 존재하던 시공을 초월한 풍경들은 화폭의 '별유천지'로 재현됐다. 밤하늘, 뭉게구름, 물결 등 일상 속 자연의 모습이 마블링 기법과 산수 표현을 통해 마치 다른 세계의 모습처럼 환상적으로 표현된 것.

김단비 작가의 전시는 9월 29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박아름 기자

사진에 반한 그들이 전하는 세상

한국환경사진연구소, '사진에 반하다' 展

최용백 사진작가의 작품 '깨달음의 미소 망월사'가 기획전 '사진에 반하다'에 출품된다.

한국환경사진연구소와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는 '사진에 반하다' 展을 9월 12~15일 겸재정선미술관 3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최용백 작가를 비롯해 53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기획전이다. 최용백 작가 및 김노천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장이 공동 기획하고 인천문화재단 및 인천아트플랫폼이 후원한다.

참여 작가들은 대학시절부터 사진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진 공부에 뛰어들어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전국 곳곳을 발로 뛰어다니며 단 하나뿐인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카메라를 통해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의미 있는 존재'로 재탄생시킨 이들의 작품들은 대상을 직접 보지 못한 관람객들에게도 생동감을 고스란히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아름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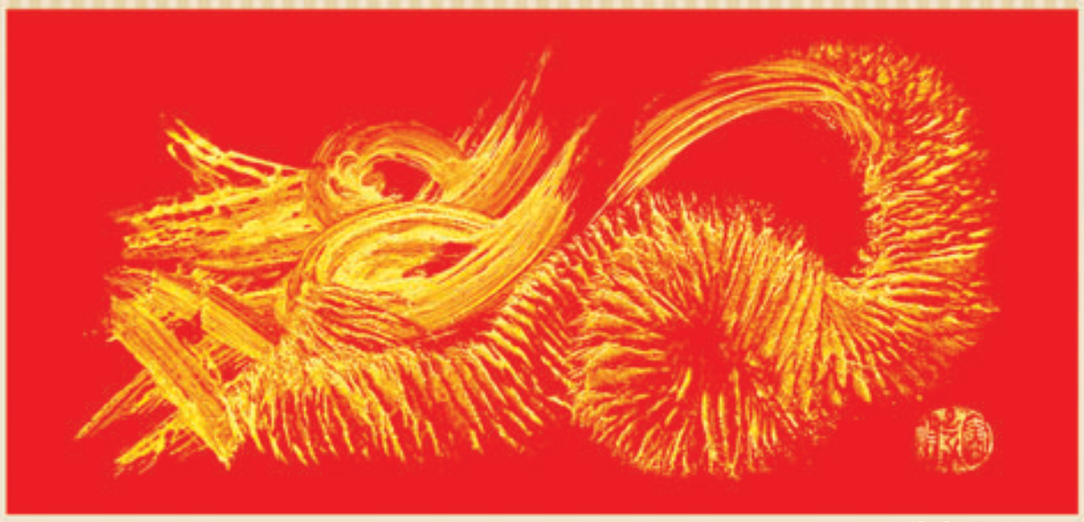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달마도를 능가하는 신통방통大통 호신용
용·호 선경도 출현하다



태황 용·호 선경도

용은 하늘의 제왕, 호랑이는 지상의 제왕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용도 되고 호랑이도 되는 세계 유일의 작품입니다.
용·호 선경도가 스님의 기도중에 현몽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용·호 선경도의 위신력(威神力)이 당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소장하는 것 만으로도 기운이 달라 지고 액운을 막아주며 소원성취가 될 것입니다. 건강성취·합격성취·사업성취·가내평안·집안우환·병고로 고통 받는분, 신통방통大통 될 것입니다.

태황 용·호 선경도	크 기
핸드폰, 자동차 부착용(3D)	
사무실, 거실 등 액자용 (大)	550㎜ × 360㎜
책상, 침실 등 액자용 (小)	460㎜ × 295 ㎜

※본 작품은 작가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시 법적인 책임을 받습니다.
세계 40여개국 저작권이 있습니다. Copyright©2017 Tae Hwang All rights reserved

학업성취·사업번창·병고액난 소멸·가정화평·좋은인연·결혼성취 등

•구입문의 : 법향선원 031-886-1179 / 050-2879-8709
•입금계좌 : 농협 301-0184-2624-71